

## 海外技術用役의 이런일 저런일(Ⅱ)

林 迎 春\*

農工學會誌 第21卷 第3號에 “海外技術用役의 妙味라는 題目下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토막을 소개한바 있으며 今番 소개하고자하는 것은 海外技術用役을 遂行하더 경험한 이런일 저런일들中 會員 여러분의 관심거리 또는 심심푸리가 될만한 일들을 계속 소개할까 한다.

世界銀行 또는 亞細亞開發銀行등 國際金融機關의 원조 또는 借款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中進國 및 後進國의 農業開發事業에 必須的으로 수반하는 國際技術用役團 雇用に 있어서는 1972年 9月까지는 先進國의 用役會社들이 도맡아 했던 獨占物이었다. 先進國의 學識이 높고 經驗이 豊富한 高級專門家들로 構成되어 있는것이 技術用役會社라 할수 있었으며 그네들이 中後進國에 가서 그나라 일을 해주는 것이었음으로 待遇도 좋고 契約方法도 그네들에게 맡기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中進國 用役會社가 그네들과 競爭하여 이기기란 하늘에 별따기만치 어려웠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었다. 特히 專門實力, 語學, 海外經歷, 國力등 모든面에서 不利했고 前例가 없는 일이라 더욱 어려웠다. 이 어려운 壁을 여러 中進國中에서 韓國이 뚫었다. 韓國에서도 우리 農工人들이 해내었다. 即 農工學會員의 主軸은 이루고 있는 農業振興公社가 國際 用役團으로서 1972年 10月 26日 亞細亞開發銀行과 技術用役契約를 맺었다. 越南의 高龍지구 시범농업개발사업으로 6,300ha의 타당성조사였다.

계약금액은 美貨 155萬弗 이었고 6個月동안에 延 48m/m로 15인이 참여했다.

中進國技術用役團이 先進國用役團들과의 경쟁에서 勝利할수도 있다는 國際慣例를 처음으로 만드는 크나큰 事例와 뜻깊은 歷史를 만드는에는 쉽게 안겨다 준것은 아니다. 기회도 포착했고 비상한 노력의 結果이다. 當시 亞細亞開發銀行에서는 中進國의 用役團들의 등록을 받고 SHORT LIST (5~7個 用役團에 用役申請書를 내라고 招請하는것)에 中進國用役團을 1個式 間或 끼우기 시작할때였다. 우리는 1次的으로 SHORT LIST에 끼는데 成功했다.

그당시 ADB에 登錄된 用役團數는 무려 1,800餘個 (1977年度는 3,821個)였다. 先進國의 有名한 會社 5個社와 같이 招請을 받았다.

2次的으로 할일은 申請書를 잘쓰는 일이다. 用役費用을 除外한 모든 技術的인 事項만 申請書에 써내면 이를 評價하여 1등한 會社와 “네고”를 하여 技術의 問題를 雙方간에 결정하고 그다음 費用關係를 決定짓는 것이 海外技術用役의 特徵이다.

그러므로 于先 申請書 作成에 있어 評價時 1等이 되도록 모든정성을 들여서 신중히 만들어야한다. ADB을 포함한 國際金融機關의 評價基準은 (100點 만점으로 할때)

첫째 會社의 事業實績(類似地區 및 地域의 事業實績) 15點~20點

둘째 作業計劃 및 遂行方法 25~30點

세째 技術者들의 適性 50~60點으로 配點하고 있다. 첫째의 會社事業實績은 우리 ADC가 他會社들보다 不利한 立場이라 볼수 있었고 세계의 技術者에 關해서는 會社內의 最適任者를 고르기도 安心이 안되어서 서울大學校와 農村振興廳에서 博士學位 가진 분으로서 경력豊富한분 2人을 補充하여 最善을 다했고 成敗가 左右되는것은 둘째인 作業計劃 및 遂行方法이다. 이것이야 말로 머리의 싸움으로서 正確한 精報와 現場을 똑바로 파악해야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상을 해야한다. 結局 우리가 勝利한 것은 이것을 잘하였기 때문이다. 1972年初에 韓越經濟協力事業으로 그地域의 豫備妥當性調查를 한바 있어 筆者自身이 現場에 가서 파악도 했고 ADB에 가서 여러 關係者들과 接觸하는 동안 多幸히도 正確한 情報를 얻을수 있었으며 따라서 評價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것과 비슷한 業務遂行 方法과 最善의 作業計劃도 짜낼수 있었다. 申請書 作成時限이 急迫하여 國際전화로 一次的으로 方向을 提示했고 歸國하자마자 草案을 모두 뜯어 고쳐 ADB에 提出하였던바 歷史的인 成功을 한것이다. 모든 일이 험안들여 되는것이 없고 어려운 일도 勞力하면 노력한만치 수확을 거둘수 있다는 事實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農業振興公社 副社長